

전일동향	전일대비 4.10원 상승한 1,482.00원에 마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478.40원(15:30 기준) 대비 0.80원 하락한 1,477.60원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수출기업 네고 물량 출회와 2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, 전일 대비 4.10원 상승한 1,482.0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0.9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03.09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77.60	1482.00	1471.10	1482.00	1475.60
	엔화	908.39	910.79	903.09	903.09	-
	유로화	1685.05	1689.89	1679.73	1688.36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32	-2.7	-6.92	-14.41
	결제환율(수입)	-0.15	-1.66	-4.81	-10.95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	강달러 흐름에...1,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8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73.40, 15:30 기준) 대비 9.40원 상승한 1,482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강달러 흐름과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상승 전망한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즉각적인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조기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. 이에 따라 미-이란 군사충돌과 홍해 운항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우려가 재차 불거지며 강달러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 아울러 국제유가 오름세와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으로 달러 인덱스는 101선을 돌파했으며, 대내외 리스크가 맞물리며 엔화 약세가 심화된 점 또한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다만,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달러 공급 확대 기대감은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75.00 ~ 1486.67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951.57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4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2224.64, +385.38p(+0.7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96.5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519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